

“전남 산업·경제·문화 중심지 광양, KTX 정차 필요”

공동추진협의회 구성 정치 캠페인 14개 지역사회단체 참여 서명운동 경전선 정치계획 내년 상반기 결정

광양시가 KTX의 광양역 정차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광양시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 KTX-이음 광양역 정차 캠페인을 여는 등 KTX 정차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양시 중마동은 최근 중마동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지역 내 14개 사회단체와 함께 KTX-이음 광양역 정차 서명운동 등 정차 실현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광양 발전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중요한 선결 과제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급한 당면과제이며, POSCO 광양 제철소와 광양항이 있는 전남동부권 산업·경제·문화 중심지 광양에 KTX(EMU-260) 정차가 필요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이 중마동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KTX-이음 광양역 정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양시 제공>

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시민 서명운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공동추진협의회장인 정인화 광양시장과 서영배

광양시의회의 의장, 김진환 민간추진위원장, 도·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TX-이음 광양역 정차 실현을 위해 뜻을 모아 흥

보했다.

중마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내 사회단체와 협력해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KTX-이음 광양역 정차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당위성을 인식시켜 시민의 서명운동 참여 의지를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한 이정식 중마동장은 “세계 최대 규모 광양제철소와 국내 최대 수출입 물동량 광양항, 국가산업단지 자리가 잡고 있어 KTX-광양역 정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교통환경 개선과 투자 유치, 관광 산업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 KTX-이음 광양역 정차 및 확대 운행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전선 순천-부전 간 KTX-이음 노선(정차역)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수립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고속전철은 내년 하반기에 운행될 예정이며 순천에서 부전(부산)까지 1시간 32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진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민의 상 수상자 도양택시 김순석 대표 선정

고흥군이 최근 고흥군민의 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회·복지·산업 부문에 도양택시 김순석 <사진> 대표를 2022년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 대표는 평소 택시 운행을 하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무임으로 모시고, 매일 첫 손님에게서 받은 요금은 불우이웃돕기 통장에 적립해 연말연시 이웃돕기를 실천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해왔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의복(100벌)을 마련해주고, 매년 지역 노인회에 연탄 300장씩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102명의 학생에게 5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이웃사랑 실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1월 1일 군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이루어진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j@



정기명 여수시장이 추곡수매 현장을 찾아 올해 수확한 쌀을 살펴보고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 추곡수매 현장 소통 행보

농업인들 고충·현안 청취

정기명 여수시장이 추곡수매 현장을 찾아 농민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정 시장은 지난 25일 아침 첫 수매 장소인 소라면 덕양농협장고를 방문해 농업인들의 고충과 현안을 청취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 미곡 매입은 오는 11월 14일까지 21개 수매장에서 실시된다. 매입량은 전년보다 22% 증가한 4만 4439포대(40kg) 규모가 될 전망이다.

매입 품종은 신동진, 새청무 2개 품종으로,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 시장은 이날 수매 현장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벼 포대에 직접 검사 증인을 찍어

보며, 농업인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 시장은 “올해 수확기를 앞두고 태풍 힌남노가 북상해 우려가 컸지만, 농업인 여러분의 철저한 대비로 평년을 넘는 수확량을 달성했다. 우리 농촌을 지켜주시는 농업인들께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매 관계자에게 운반 트럭과 지게차 등 움직임이 많으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은 시장이 직접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만남의 장이자 소통의 통로이다.

정 시장은 취임 후 전통시장과 경로당, 복지관 등을 방문하며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로봇복지 생태계 조성 세미나

고령화 시대 로봇 활용 대안 제시

순천시가 로봇을 활용한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순천시는 지난 21일 로봇 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 약자 대상 로봇 확산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세미나에는 신현 순천대 교수, 송세경 카이스트 교수, 김광진 광주테크노파크 박사, 김정훈 한국 전자기술연구원 연구원, 천영석 (주)트위니 대표를 포함한 8명의 전문위원과 관련기업 (주)마인드로의 신현미 대표, (주)제이엘로보틱스의 김동진 대표 및 관련 부서가 참석해 순천의 로봇 확산을 위한 방향을 다잡았다.

세미나에 참여한 로봇 전문위원들은 현재 개발된 순봇에 대한 고도화가 계속돼야 한다며 수요자 대상 실증을 위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또 로봇이 지방소멸,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마스터 플랜에 반영해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로봇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자체의 사업 참여 의지를 높여 평가하며, 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이동보조로봇 개발 등 순천시 로봇 복지생태계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순천시는 올해 4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사회적약자와 돌봄인력을 대상으로한 정서지지 로봇 ‘순봇(순천의 로봇)’을 개발했다. 이후 지난 9월부터 장초초등학교에서 시작한 로봇이카데미를 기점으로 순봇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로봇 전문위원과 민·관이 모인 이번 세미나를 통해 로봇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이 제시됐다”라며 “향후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로봇사업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가을 수확기 한달간 전 직원 농촌일손돕기

시민·사회단체 등 동참 유도

구례군이 가을철 영농기를 맞아 일손 부족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구례군은 지난 24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구례군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촌일손돕기 등 현안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례군은 가을철 주농산물인 감과 산수유가 적기에 수확될 수 있도록 11월 25일까지 약 한달간

전직원을 동원해 일손돕기에 나선다.

일손돕기 대상 농가는 주로 코로나19 등 질병 및 상해로 농작업을 할 수 없는 농가와 고령농가 등 일손이 취약한 농가 53가구를 선정해 추진 할 예정이다. 지역단위 군부대,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에 일손돕기 동참을 유도하여 일손돕기를 추진 할 계획이다.

이번 일손돕기는 적기에 농산물을 수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김순호 군수는 농가 일손돕기 외에도 하반기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홍보, 지리산피아골 단풍축제 준비, 감 작겨래 장터 준비 철거 등 적극적인 군정수행을 주문했다.

김순호 군수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손돕기에 성실히 임하라”며 주문하고 “작업도구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농가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요리교실

구례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 중인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영양의 날을 맞아 구례 어린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교육은 아이들 스스로 여러 가지 재료로 요리를 해보고 식재료 탐색 및 요리 활동을 통한 편식 예방과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구례군 제공>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보성군 11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보성군이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1인당 매월 90~110만 원(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어업 경영비 및 여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휴,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 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자격 요건은 2023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청년어업인(1983년1월1일~2005년12월31일 출생자)으로 보성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포함)이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았어야 하며 금융기관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1일까지이고 사업희망자는 군청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류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11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1차 서류, 2차 면접)를 거쳐 12월 중 사업 대상자 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 중앙동, 자원 재활용 환경포인트 올진·삼척 산불지구 나무심기에 기부

6개월간 17만 포인트 모아

여수시 공무원들이 재활용 환경 포인트를 강원도 산불지구 나무심기에 기부해 화제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중앙동(동장 김성준) 직원들은 최근 6개월간 자원 재활용으로 모은 환경 포인트를 올진·삼척 산불지구 나무심기에 기부했다. <사진> 직원들은 지난 5월부터 매주 페트병과 캔, 의류, 서적 등 재활용품을 여수 ‘나눔 행복’ 자원순환 가게에 전달해 포인트를 모았다.

직원들은 이렇게 모은 17만 포인트를 환경재단에서 진행하는 올진·삼척 산불지구 나무심기에 기부해 의미를 더하게 됐다.

김성준 중앙동장은 “직원들과 함께 자원순환 가게에 참여해 환경도 살리고 기부에도 동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쁘고 뿌듯하다. 앞으로도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문화 확산에 우리 중앙동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동주민센터 직원과 자생단체는



‘여수시 자원순환 가게’에 매주 참여하는 한편 자원재활용 실천다짐 메시지를 SNS에 게시하는 ‘고!고! 챌린지’에도 열정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